

예수님 이야기

② 예수님의 시험

나 레 이 셴 예수님보다 딱 6달, 6살 아닙니다. 6개월 먼저 태어나서
"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~" 라고 예수님을 미리 소개한
사람이 있었어요. 바로 요한이예요.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주는
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불려졌답니다.

세례를 받고 나신 예수님께서 어느~~~날,
우리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. 그곳은 하늘의 태양과
땅 말고는 아~무것도 아~무것도 없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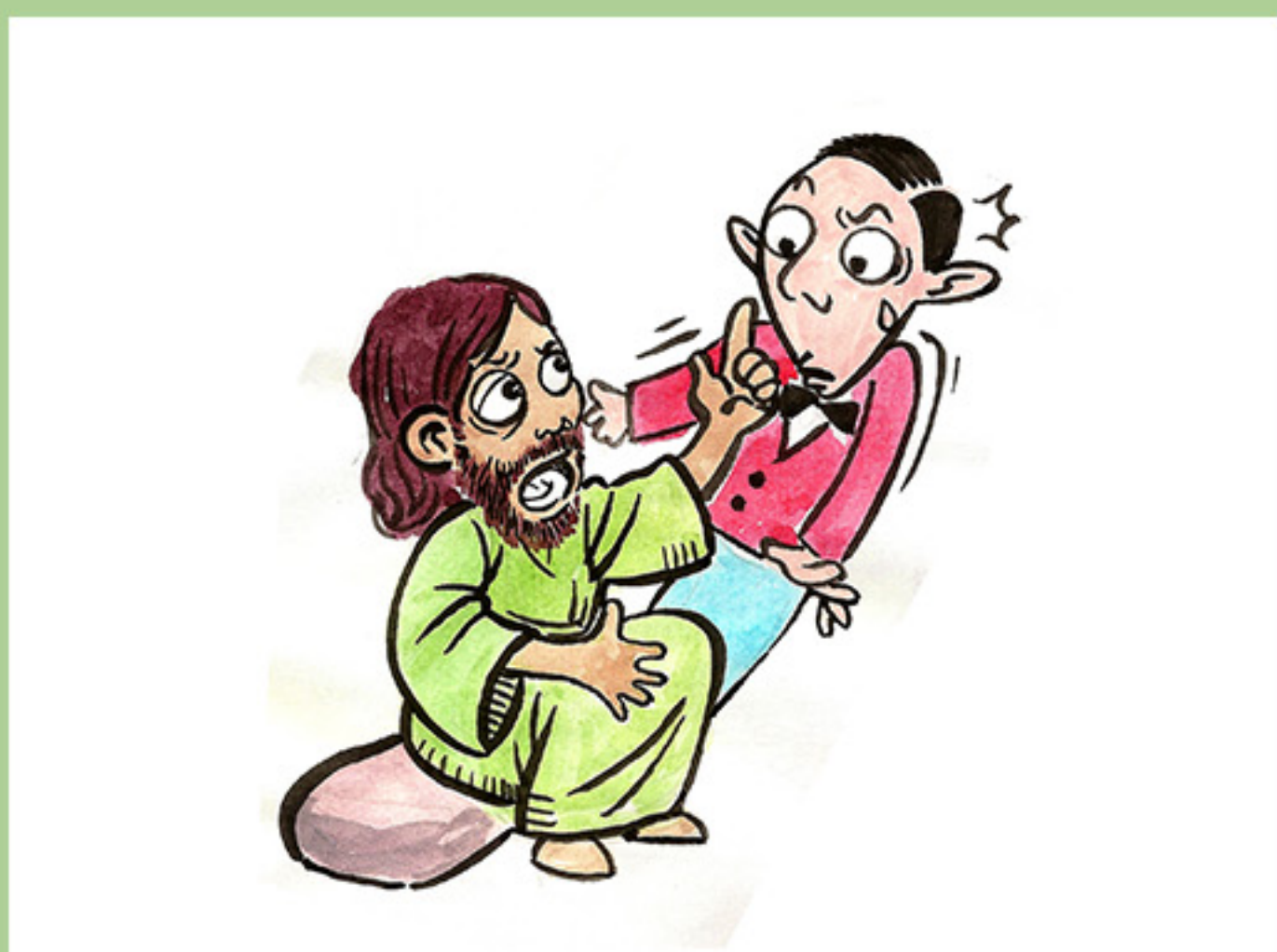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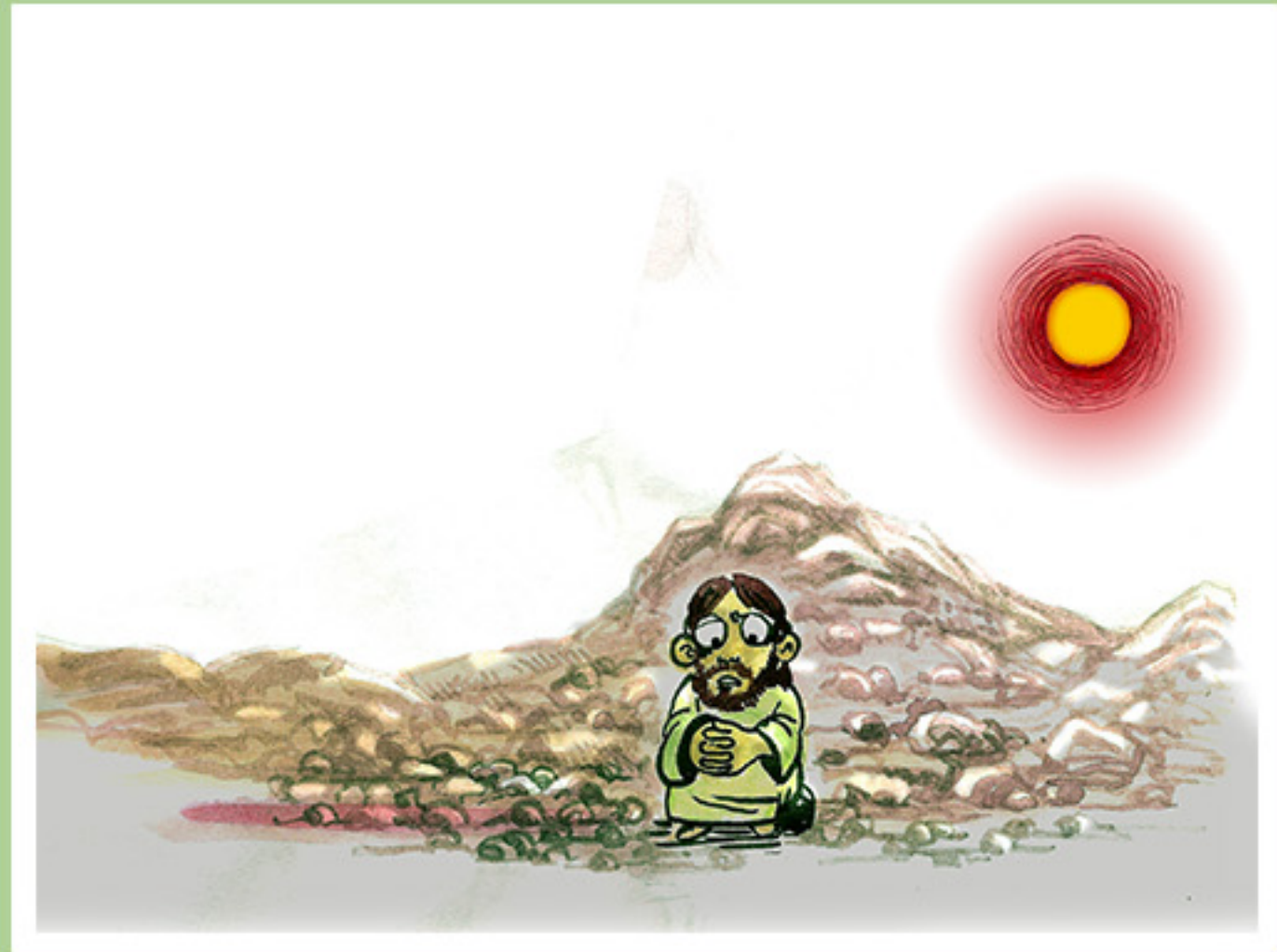
예 수 님 그래.. 정말 아~무것도 그 누~구도 없구만.
광야야말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곳이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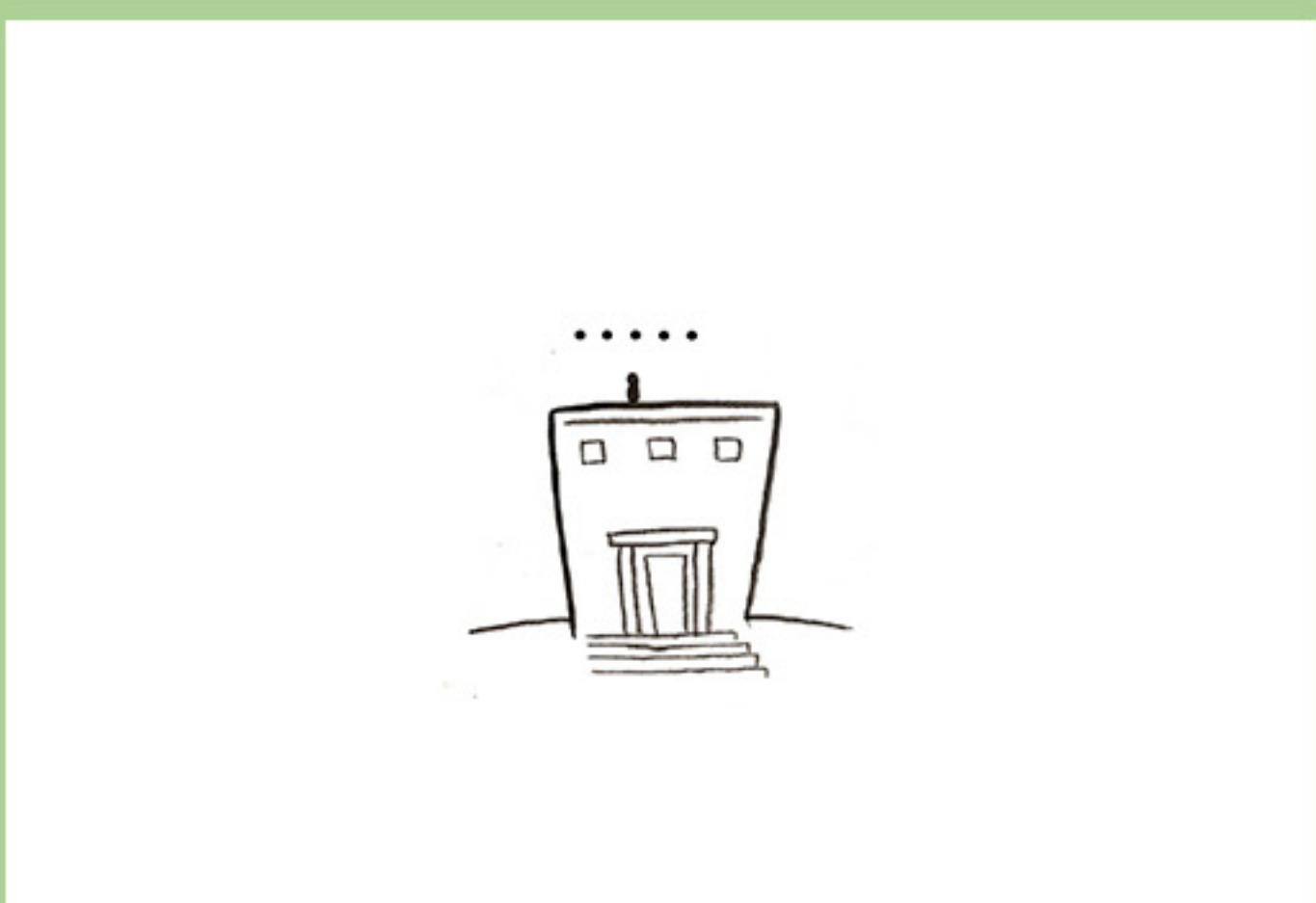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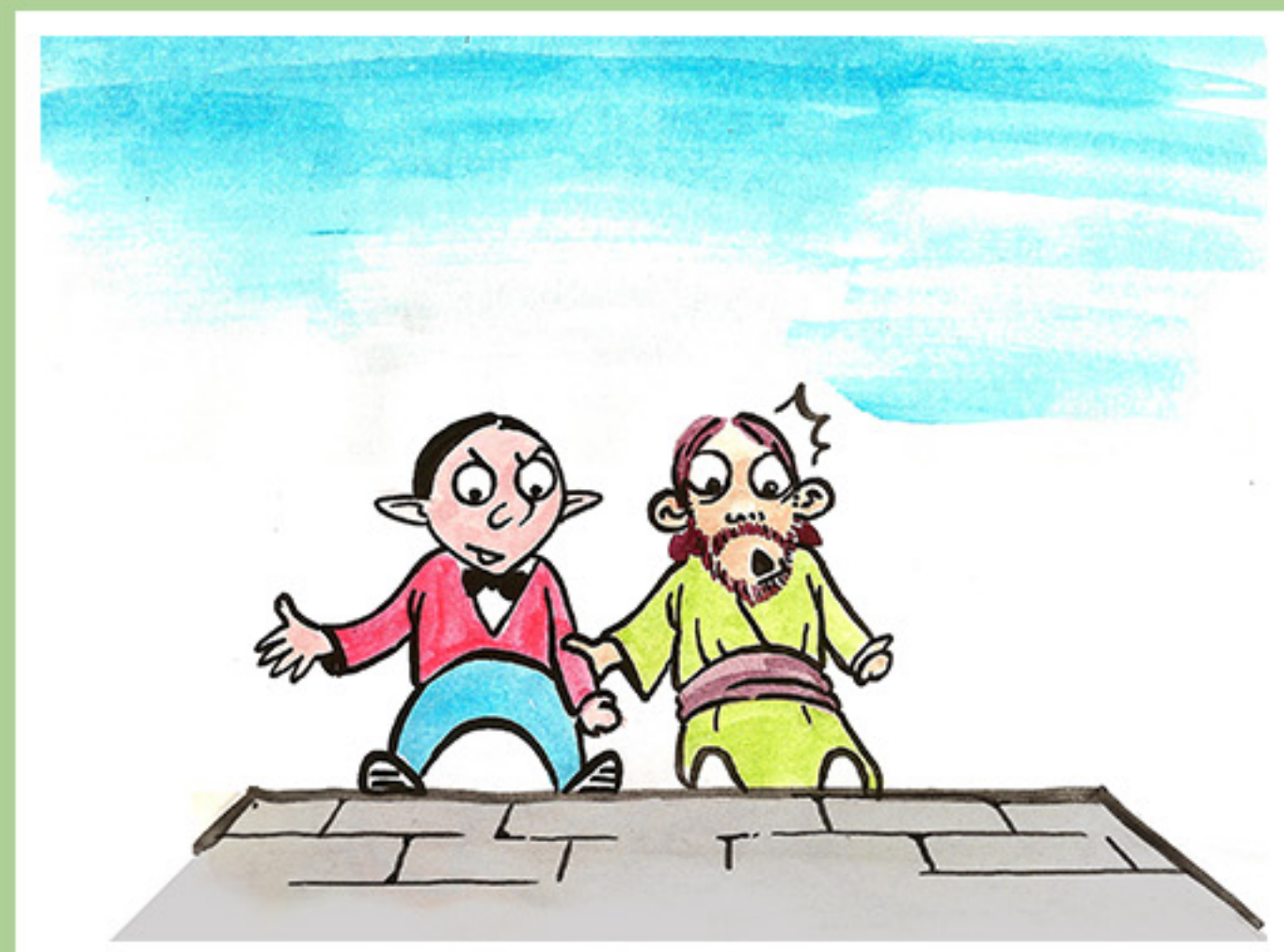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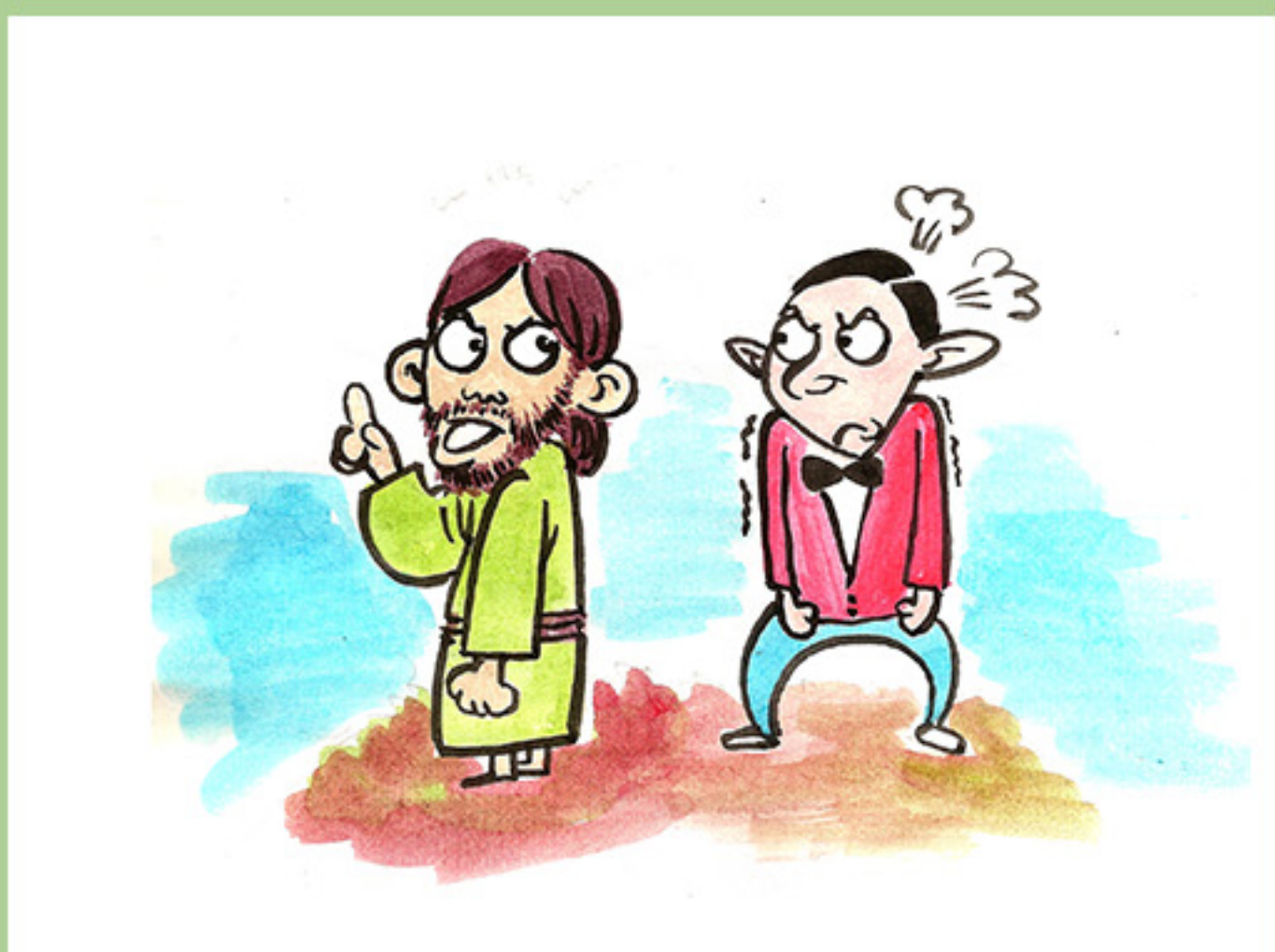
나 레 이 셴 광야에서 무려 사십일 동안 밥도 안먹고 금식하시며,
하나님 말씀을 깊~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~이 대화하며
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!!
(목소리를 바꿔) (음향소리 배고파하는 소리 꼬르륵)
배가 너~무 고프셨습니다.
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때..! 아 이런 녀석이 등장하다니! 사탄!! 사탄이
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.

사 탄 어이! 예수~ 배 많이 고프가봐?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?
배고프지? 그래서 말인데..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
이 돌들 빵으로 만들면 어때? 그럼 평생 배고플 일 없겠다 그치?
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가뿐하게 해야하는거 아냐?
나랑 동업하는 거 어때? 광야~베이커리~!!
웬지 대박집 느낌 나지 않아?

예 수 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부르자고 사는 것이 아니다.
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! 이 식충이 자식!

사 탄 알지! 나도 알지~ 누가 몰라서 그러니~ 하도 배고파 보이길래
그런 거지! 오호라 예수~ 너 진짜 찌나구나? 내가 당황했냐고?
(엄청 놀랐으면서도 놀라지 않은 척 하면서) 아니 아니야 예상했지,
그럼그럼. 예상한거랑 너~무 똑같아서 살짝 아주 살짝만 놀란거야.
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미스터 사탄이 아니지. 아! 그래! 예수~
잠깐만 나 좀 따라와 봐. 갈 데가 있어! 자 이제 몸풀기 끝났으면
이제 진짜로 한 번 붙어볼까? 자 따라와보라구~





나 레 이 선 사탄은 예수님의 손을 잡아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.

사 탄 자~ 저 곳이 갈릴리, 저 쪽은 예루살렘, 그리고 저기 저 화려한 곳이 바로 로마야! 어때! 멋지지? 저 땅이 다 내꺼란 말씀이야. 너도 내가 땅부자인건 잘 알지? 저 저 땅들... 내가 너 다 줄게. 다 준다 다~ 내가 준다~ 그러면 진짜 주는거야~ 아 그냥... 은 아니고...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? 그냥... 나한테 절 한번 시원~하게 해봐~ 왜? 누가 볼까봐 그래? 그럼 그냥 흠 만지는 것처럼 그냥 살짝만 숙여봐. 내가 절했다고 인정해줄게. 응?

예 수 님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기록되었다. 이런 이단놈의 자식!

사 탄 이단? 어떻게 알았지? 아 진짜 찐이잖아?

.....

나 레 이 선 사탄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의 꼭대기,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.

사 탄 뭐 안 무섭지?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 없겠지 그지?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준다고 나왔더라~ 한 번 보여줘봐~ 왜? 겁나냐? 한번 뛰어내려 봐~ 사람들이 다 보고있다가 널 수퍼히어로~라고 부르지 않겠냐? 수퍼히어로~ 뭐 수퍼맨도 좋고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말만 해~ 내가 옷 맞춰줄게~ 진짜 내가 레깅스처럼 몸에 딱 붙어 멋지게 보이도록 잘 맞춰볼게~

예 수 님 아..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, 이런 썬 척하는 겁쟁이 같으니라고!

사 탄 뭐... 뭐.. 겁쟁이? 썬 척 한다고? 어떻게 알았지? 아 진짜 너같은 놈은 처음본다. 미스터 사탄 유혹 3단 콤보에도 꿈쩍도 하지 않다니!! 너 상대하다가 내가 다 시험 들겠다.. 오늘은 내가 졌지만 언젠다 널 꼭 다시 찾아갈거야! I will be back! 또 보자! 쳇!

예 수 님 나를 뭘로 보고... 아.. 배고프다.... 아.. 근데 나 어떻게 내려가지.. 아.. 사탄 저 나쁜 놈... 아놔 진짜.....